

#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표현방법 -혼성모방(pastiche)를 중심으로-

손 향 미 · 박 길 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 1. 서론

복식은 의상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에서 신발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장식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토탈패션화 현상이 대두되면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복식 중 헤어스타일은 얼굴을 강조하고 우리의 인상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다른 복식과 더불어 별도의 영역으로 발달되면서 독특한 상징체를 이루고 있다. 또한 헤어스타일은 대중을 중심으로 빠르고 넓게 그 영향력을 확장해 감으로써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예술이자 사회 문화적 기능의 한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한편 현대는 모든 영역에서 경계가 해체되고 구분이 모호해진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로 특징지어지며,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이 잘 반영된 창작방법 중의 하나가 혼성모방이다.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표현방법 중 하나인 혼성모방의 특성을 분석하여 문화현상의 하나인 헤어스타일 연구에 적합한 분석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후반의 컬렉션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혼성모방 양상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질적 연구로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 후 인터넷 사진자료 즉 시각적 자료를 연구의 분석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잘 표현하는 혼성모방은 어떤 스타일이 행해졌던 맥락과 의미를 무시한 채 그것의 형태와 방법만을 모방하여 조합하거나 재배열하는 창작방법이다.

이러한 혼성모방을 문화현상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의 정의를 근거로 한 혼성모방은 모든 중요한 경계들이 와해되는 것으로, 모든 스타일의 해체와 역사감각이 상실되며, 맥락이 박탈되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혼성모방의 특성으로는 의미의 초월, 오브제의 기용, 소외미의 부상, 일시성의 추구 등 4가지로 집약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의 초월은 무작위적으로 과거 모든 스타일의 혼합으로 이질적인 것들의 혼합을 의미하며, 수많은 가능세계들이 하나의 불가능한 공간안에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한다.

둘째, 오브제의 기용은 사물이 갖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장식매체로 사용되는 것으로,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형태, 크기, 형식적 내용

등이 부적합하게 결합되는 것이다.

셋째, 소외미의 부상은 그 동안 주변적으로 무시되거나 도외시되어 왔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탈중심주의 지향의 특징이다.

넷째, 일시성의 추구는 전자 복제기술의 발달로 인한 대량 상품화의 가능성으로 지금까지의 고유성과 영원성을 추구하던 것이 이미지의 복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일시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3. 결과 및 결론

혼성모방의 정의와 특성의 결과로 나타난 현대 패션에 표현된 헤어스타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의 초월에 있어서 헤어스타일은 과거의 모든 스타일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즉 어떤 하나의 스타일에 얽매이기보다는 인종, 문화, 종교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상황과 의미를 지닌 것들이 하나의 머리장식으로 수용되면서 그것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초월함으로써 의미의 초월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반대의 것들,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의 헤어스타일로 조합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 동안 이분법적인 경계가 붕괴되는 경계의 와해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오브제의 기용에 있어서 컬렉션에 표현된 헤어스타일은 과거에 장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세상, 분재, 박재, 요리재료로 사용되던 연근, 지식 및 정보의 전달 매체인 책, 물에서의 운송수단인 배, 조명의 스탠드 갓, 실을 만드는 매체인 물레 등이 오브제로 사용되었다. 즉 그 동안 머리장식으로 사용되지 않던 대상들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장식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브제의 기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오브제의 기용은 그 동안 장식의 범주에 새로운 장식 요소가 사용되어 장식의 장르가 확장되었다.

셋째, 소외미의 부상의 경우는 과거에 소외되었던 아프리카의 금·은 동전장식, 콩고 여인의 머리모양, 폴리네시아의 남성의 헤어스타일, 일본의 머리장식요소인 쓰부시시마다와 도우랑마게, 북미 인디언의 워 보넷, 흑인 정체성의 상징인 드레드락 등이 컬렉션의 머리장식 요소로서 사용되었다. 즉 서구중심의 사회관점에서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소외되어 왔던 소수민족, 여성, 하위문화 같은 억압된 것들의 양식에 사용되었던 장식 요소들이 새롭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소외미의 부상은 그 동안의 서구 중심적인 획일적인 미의 기준에 위배된 탈중심적 사고를 제시하면서 미의식이 전환되었다.

넷째, 일시성의 추구에 있어서 컬렉션에 표현된 헤어스타일은 신체 자체의 영구적 변형의 형태인 머리의 변형이 신체 자체의 일시적인 가발 등의 일화성으로 그칠 수 있는 일시적인 외부장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시성의 추구는 신체에 직접 행하는 영구적 변형의 미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영구적 변형의 장식에 대한 부정적 측면들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일부 계층에서 이루어지던 영구적 변형의 머리장식이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하였다. 또한 헤어스타일에서 일시성의 추구는 장식의 일반화와 대중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컬렉션에 표현된 헤어스타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표현방법인 혼성모방의 특성은 과학기술의 결합과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로 패션의 장식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새로운 조형물을 탄생시켰으며 대중문화, 상업주의 문화인 패션에 기술과 문화를 접목시킨

실험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1. 김경희 (1997). "여성용 모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 김희숙 (1998).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문화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양학미 (1998).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모방."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4. 월간미술 편 (1989).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 중앙일보사.
5. 이승은 (2001). "현대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미적 특성."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6. 이정후 (2001).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7. 정현숙 (1995).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8. 진경옥, 박민영 (2000). "포스트모디패션에 표현된 혼성모방." 복식 50권 5호.
9. 최나영 (1992). "우리나라 여자 두식과 일본 여자 두식의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Ebin, V., 임숙자 역 (1988). 「신체장식」. 서울: 경춘사.
11. Harvey, D., 구동희, 박영민 역 (1995).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서울 : 한울.
12. Barnard, M. (1996). 「Fashion As Communication」. London and New York:Routledge.
13. Camphausen, Rufus C. (1997). 「Return of the Tribal」. Hong Kong : Park Street Press.
14. <http://www.encyber.com>
15. <http://www.samsungdesign.net>
16. Storm, P. (1987). 「Functions of Dress Tool of Culture and the Individual」. New Jersey : Prentice-Hall, Inc.